

광주불교, 청소년을 품안에

사찰, 포교사단 등 멘토링 결연·후원 물품 전달 등 활발히 전개

봄을 맞아 광주 불교계의 자비 나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수 청암사와 광주전남포교사단, 향림사의 스님과 신도들은 소년원과 멘토링 결연을 맺었다. 광주 성거사 순례단은 캄보디아의 한 초등학교에 학용품과 체육복 등을 전달했다.

여수 청암사, 광주전남포교사단, 향림사 청소년 멘토 활동

여수 청암사(주지 정암),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정영근), 향림사(주지 해향)가 광주소년원(고흥정보산업학교, 원장 고봉용) 학생들과 멘토링 자매결연 및 후원자 서약식을 가졌다. 3월 29일 오후 학생식당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소년원 학생과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멘토링은 봉사자와 학생들이 1대 1로 후원관계를 맺어 매일 1~2회씩 개별상담활동과 정서지원 활동, 생활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을 맺은 봉사자와 학생들은 각 종 교육행사에 함께 참석 하고, 취업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게 된다.

여수 청암사 신도 김애준 님과 결연을 맺은 오 모교은은 "부모님이 면회를 오시는 것 같다. 새로운 선생님들에게 좋은 말씀

광주 성거사 순례단, 캄보디아에 학용품 지원

광주 성거사(주지 해공) 순례단은 25일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인근 초등학교



광주 성거사 순례단이 캄보디아 초등학교에 단체 티를 전달했다.

들이 더 이상 나오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용품들은 성거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기금으로, 어려운 교육여건에 있는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전달됐다. 특히 이번에 후원품이 전달된 학교는 수상촌에 위치한 아이들의 취학률이 낮아 많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난한 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으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세습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거사 순례단은 캄보디아 불교 사원에서 킬링필드 크메르루즈군에 의해 학살당한 약 250만 명의 영혼에 대한 천도제를 26일 봉행했다.

에 학업활동에 필요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단체 티 200벌을 전달했다.

“의료봉사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

경북대병원 불교법당 개원, 대구불교호스피스 창립1주년



경북대 병원에 부처님의 법을 전할 법당이 문을 열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센터장 은장권)는 3월 26일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불교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총무이사 선지 스님과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지도법사 단장 정효 스님, 지도법사 정법 스님, 경북대병원 이원길 불자회장 등 불교계 인사들과 병원 관계자, 환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법당은 42㎡(14평) 규모로 상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봉안됐으며 지도법사

인 정효 스님과 정법 스님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한편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는 26일 센터 창립 1주년 기념식과 자원봉사자들의 날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정법 스님에게 공로패가 전달되고 각 병원 봉사팀장과 봉사자 10명에게 상장과 포상이 수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자장면 통한 포교활동 전북 불교계 ‘인기’

남원 선원사는 매주 화요일마다 선원사에서 자장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실 탄약항 호국 장영사, 35사단 호국 총경사 등 군 법당을 찾아 직접 만든 자장면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3월 27일에도 지역 향토사단인 35사단을 찾아 신병 훈련 중인 훈련병들과 불자장병 300명에게 자장면을 전달했다. 29일에도 금산사 복지원에서 위탁

운영중인 서원 노인복지관을 찾아 500명의 어르신들에게 자장면을 대접했다.

익산 농민회도 20일 인근의 육군 부사관 학교를 찾아 부대 법당에서 장병들에게 자장면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각 중단이 치열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어 자장면을 통한 포교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법상종 강원종무원 개원법회 봉행

대한불교법상종(종무원장 해월) 강원도 종무원 개원법회가 3월 26일 춘천 삼악산 백련암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해월 법상종 종무원장을 비롯해 종단 임원 및 지역내 사찰 스님과 춘천 불이회, 춘천 선우회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 종무원장 불통(백련암 주지)스님은 "다름과 차이를 넘어 화합의 노력을 다하겠다. 종단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종



무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개원법회에 이어서는 종무원 헌관식이 진행됐다.

100자 뉴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자비의 쌀 100포대 전달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인근 금암동과 진북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과 경로식당 등에 자비의 쌀 100포대(20kg)를 전달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80세대와 경로식당에 전달된 쌀은 약 3개월 동안 불자들이 모아온 것을 일요법회 운영팀(팀장 하윤호)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은 "자비의 쌀 나누기는 불교의 자비와 이타행의 실천으로서 불자들이 꼭 지켜야하는 덕목으로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을 꾸준히 실행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농포선원 선우회, 수륙대제 봉행

거제 농포선원 선우회(주지 지선)는 3월 13일 거제 장승포 수협 물량장에서 '2011년 거제시민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수륙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인 서울 봉원사영산재 보존회(총재 구해)의 시연으로 고유의 수륙제가 시연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월드승가회 천안함 위령대제 봉행

월드승가회(회장 무승)는 3월 26일 영축산 대자암에서 천안함 1주기 추모제 및 일본지진 희생자를 위한 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위령대제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월드승가회 회장 무승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지킨 모든 선지식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승가가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 조계종 수도암 ‘녹지원’ 다실개원

수성구 범어동 수도암(주지 승원)은 경내 전통식 목조건물엔 ‘녹지원’이란 이름의 찻집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녹지원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 일상에 지친 직장인과 주부 등에게 전통차와 다과를 제공하며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할 계획이다. (053)743-7070 손문철 대구지사장

도동시비 동산 ‘시비 건립 제막식’

대구 문인들이 제현사에 모여 도동시비를 건립했다. 영남아동문학회(회장 김하나)와 도동시비 동산운영회(위원장 권대자) 등 대구 문인들은 3월 13일 대구 제현사 동산에서 ‘공적비 및 시비건립 제막식’을 개최했다. 5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강윤제 대구아동문학회장장의 ‘사과를 위한 고고학’ 외 8점의 시비가 세워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포항 황해사 관음보살 봉안 법회

천태종 포항 황해사(주지 진덕)는 3월 25일 관음 33응신 부처님 봉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정종 도용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김학송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천태종 신도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해사 주지 진덕 스님은 봉행사에

서 "관음 신앙을 체계화하여 관세음의 자비사상을 포항 황해사에서 올곧게 신앙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로 "상대를 배려하고 공경하는 자비정신을 살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근본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서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 (수시모집)
2. 교육내용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범패 : 거불, 복청계, 헌좌계, 가영,향수나열, 도량계, 다계 등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계, 다계 등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 / 010-5324-5133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바른정법.바른인연Ⅲ

아직도 말을 붙이고, 화두 붙이고 앉아 있습니까?

연재중 세상에 몸을 나누실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승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송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여섯 도적)을 가시발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서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 아랍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담하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 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목속 법당이나, 00신통도량이나, 00영험도량이나, 00살바위 도량이나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는 것에서 부터 닦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통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은 무엇이 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담 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타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십시요 아멘는 지.....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자랄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것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시, 앞서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뭐고? (이 무엇이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즈음 어느 개그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자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님, 보입니까?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단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발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이루면서 주사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님이, 법님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몇몇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은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앞서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등